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길을 걷다가 다친 친구를 본 적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마음이 편할까요? 오늘 성경에는 다친 사람을 도와준 착한 사람이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니?” 율법학자는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 내 이웃이 누군가요?” 하고 또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몹시 다쳤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그는 다친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다가가서 상처에 약을 바르고,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 주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주며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더 필요하면 제가 돌아올 때 드릴게요.”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율법학자는 대답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친구들,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친구가 되어야 해요. 친구가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주고, 속상해할 때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기뻐하신답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도와줄래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예배 순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하나님 지켜 주세요 다 같 이

말 씀 봉 독 누가복음 10:25~37절 다 같 이

설교 착한 사마리아 사람 설교자

말 씀 나 늄 다 같 이

합심기도 다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한나님 지혜 주체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으로 이웃을 돋게 해 주세요.

힘들고 외로운 친구를 보면 외면하지 않게 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2.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